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4월 5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마가복음 1장 1-10절

설교제목 : “주가 쓰시겠다 하라”

위기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상황은 한국교회에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쓰임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 쓰임받은 자들은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자들이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나귀의 주인들은 어느 날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하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나귀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3절)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쓰시겠다**’인데 나귀의 주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나귀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금세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창49:10-11/ 속9:9)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은 제자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8-10절) 따라서 나귀의 주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간주했을 가능성 큼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낯선 자들을 예수가 보낸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귀의 주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구약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의깊게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불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세상을 동시에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성경과 세상에 대한 눈을 열어야 합니다.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말씀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은 자들은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1-2절) **두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측하지만, 추측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내시며**’란 단어인데, ‘**보내시며**’의 헬라어가 ‘**아포스텔레이**’인데, 이 단어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진 단어입니다. 특히 보내는 자의 권위와 보냄을 받는 자의 임무와 직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내시며**’란 단어는 두 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견고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임무를 완성할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구절이 6절인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여기서 ‘**이르신 대로**’에서 ‘**대로**’ 해당하는 헬라어 ‘**카도스**’는 행동양식이나 혹은 분량이나 정도에 있어서 선행하는 것과 동일함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제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 생각으로 그 말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두 제자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인격적 교제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인격적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고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면, 때론 나의 판단과 이해에 부합하지 못해도, 그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교제가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7절)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개선장군과 같은 군사적인 영웅이나 왕이 등극할 때 보통 말 혹은 병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평화와 겸손과 섬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자기비우심이 전제가 됩니다.(빌2:5-11)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란 하나님으로써 마땅히 받으실 권리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고 명백한 능력과 권위를 유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신성의 본질과 영광을 발산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모욕없이 천군천사의 지고한 예배만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써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쓰셨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평화와 겸손과 섬기는 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 한국교회를 값지게 쓰실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말씀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까?
- 2) 두 제자들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3) 예수님의 자기비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한국교회 혹은 우리 삼광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쓰임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교훈삼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